

전남 '가고 싶은 섬'에 영광 안마도·신안 선도 선정

2020년부터 5년간 각각 50억원 투입해 섬별 특성 살린 개발

“주민은 살고싶고 여행자는 가고싶은 생태 여행지로 가꿀 것”

전남도의 2020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영광 안마도와 신안 선도가 선정됐다.

지난 10월31일 도에 따르면 '가고 싶은 섬' 사업 후보지에 오른 6개 시·군 9개 섬에 대한 생태자원,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주민 참여 및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2곳을 확정했다.

선정된 영광 안마도와 신안 선도에는 2020년부터 5년간 각각 50억원을 들여 섬별 특성을 살린 창의적 콘텐츠 발굴과 실행, 소득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섬마을 만들기 위한 주민대학 운영 등을 지원한다.

영광 안마도는 우리나라 서쪽 영해를 결정짓는 직선기선의 한 끝이다. 영토적 차원과 수산자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전통 문화 자원을 활용한 풍부한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 특색을 살린 청정 생태 여행지로 가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마도에는 113세대 187명이 살고 있다.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 작용에 의해 생긴 낭떠러진 해식애와, 단면 모양이 육각형?오각형 등 다각형의 긴 기동형대 기암 괴석인 절리층이 바다 한가운데 웅장하게 솟아 절경을 이룬다.

수령 300년이 넘는 동백나무 군락과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팽잎파나무 등 총 390분류군의 수종이 자생하는 아름다운 해안숲을 간직, 서해의 해금강으로 불린다.

신안 선도는 일명 수선화 여인으로 불리는 주민 현복순씨(88·여)가 10년 전부터 자신의 집 마당에 수선화를 심어 매년 3~4월이면 수선화 꽃과 향이 가득, 수선화 섬으로 알려졌다.

지난 봄에는 임야를 제외한 섬 전체 70% 면적에 100여 종의 수선화를 심어 제1회 1004섬 수선화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선화를 예술과 결합해 6차산업으로 부각할 수 있는 랜드마크



영광 안마도



신안 선도

적 요소가 충분하고, 육지와 가까워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예술휴양 섬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이 섬에는 163가구 260명이 살고 있으며 봄이면 200만 송이의 수선화와 청보리, 유채꽃이 바닷가 풍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섬이다. 낙지, 맛조개, 갈매, 농게, 칠게 등 먹거리도 풍부하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4개 섬을 선정해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전남도의 대표 섬 정책이다.

그동안 5년간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1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지원한다. 공모 선정 기준도 읍면 소재지와 인구 수 제한사항을 폐지해 규모가 큰 섬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첫 해인 2015년 여수 낭도

등 6개 섬을 시작으로 매년 2개 섬을 추가 선정해 현재는 14개 섬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양근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개 섬은 2020년부터 예산 지원과 함께 본격적인 섬 꾸꾸기 사업을 추진, 주민은 살고 싶고, 여행자는 가고 싶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생태 여행지로 꾸꾸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곡성군-곡성농협, 농산물 판매 무한책임 다짐



곡성군과 곡성농협이 지역 농산물 구입 고객에 대한 무한책임 제에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10월 30일 곡성 군청 회의실에 곡성군과 곡성농협 관계자 1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출하를 통해 지역 브랜드와 상품에 신뢰도를 높이고자 뜻을 모았다.

회의를 통해 양 측은 포장재에 곡성군 브랜드나 곡성농협이 표기된 농산물이 판매된 후에 하자나 불만이 발생할 경우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농산물 재배자는 아니지만 각 기관의 이름을 걸고 판매되는 만큼 불만사항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규명 등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사후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역에서 출하되는 농산물 포장재에 곡성군 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오고 가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농산물을 구매한 고객이 무한 감동을 받을 때까지 행정과 농협이 무한 책임제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균일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전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작목반별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무한책임제로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실현한다면 지역 농산물 재구매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이 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강진군, 화훼전용 저온저장고 지원 화훼산업 메카 도약

화훼 저온저장고 14대 공급...출하 수급 조절



강진군이 출하 성수기 수급조절과 신선도를 유지하여 가격안정과 상품의 부가가치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화훼농가에 대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

화훼농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장미, 꽃작약, 꽃잎이 소재류, 수국농가를 대상으로 화훼 재배면적 및 농가별 중복지원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 14농가에 대하여 확정했다.

강진군은 화훼 메카 1번지에 걸맞게 장미 152,066㎡, 꽃작약 82,644㎡, 꽃잎이 소재류 82,644㎡, 수국49,586㎡ 등 재배면적으로 부동의 전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진은 내륙지역보다 겨울철의 기온이 2℃가 높은 난대해양성 지역으로 풍부한 일조량 때문에 장미의 꽃 색과 향이 좋아 서울과 광주 화훼공판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꽃 작약의 경우 지난해 남부 정상회담장에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고, 마량면 상분지역에서 재배되는 꽃잎이 소재류는 전국에서 최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수국 또

한 생산량의 45%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출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승옥 군수는 "화훼 농가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화훼산업이 강진군의 자랑이 되고있다"며 "군에서도 화훼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국·도비와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양액재배시설, 보광등, 보온커튼 등 생산기반시설 완비로 화훼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불거리 제공을 위하여 강진읍의 호수공원 주변에 495㎡의 장미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고성사, 금곡사, 보은산을 연계한 수국공원 19,834㎡를 만들어 강진의 랜드마크로 육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제18회

벌교갯마을 & 문학축제

2019. 10.31. 목 → 11.3. 일

벌교읍 천변 일원 & 태백산맥 문학관

부대행사

- ▶ 곶막무료이벤트
- ▶ 황금곶막을 잡아라
- ▶ 바퀴달린 널배타기 대회

〈작가 '조정래' '선생과 함께하는...〉

- ▶ 소설 '태백산맥' 주무대 투어
- ▶ 소설 '태백산맥' 인문학 콘서트
- ▶ 작가 '조정래'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발대식

부대행사

축제 문의 | 061)857-7676